

2021년 5월 30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21편 1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시편 22편 27~28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463장(통518) 신자 되기 원합니다.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다니엘 6장 3~14절(구약p.1243)

3.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5.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6.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8.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13.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14.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 말씀선포 / 성도의 경건한 삶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기 욕망을 위해 때론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반복적인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성도는 더욱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삼가 조심하며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고 하셨습니다. 여기 “거룩하다.” 라는 히브리어는 “카도쉬”로서 “거룩하다, 옳다, 진실되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는 낼 지언정 결코 거룩해 질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거룩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룩하기 위하여 성도가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은 결국 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이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이고,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 입니다. 구약에서 “헤세드”는 경건이라는 뜻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대한 “인자함, 친절함, 은혜, 자비”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요, 성도는 그 은혜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신약에서는 “유세베이아”는 “잘, 좋게” 라는 “유”라는 단어와 “경의를 표하다, 예배하다.” 라는 단어인 “세보마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신약에서의 경건은 결국 하나님께 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여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1. 고발할 거리가 없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 다니엘은 지혜롭고 민첩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다리오왕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세 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 왕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가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작당을 하고 고발할 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들 할 정도로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과거나 오늘날에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자들은 다니엘에게도 분명히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살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으로 다니엘은 업무에 유능할 뿐 아니라 사생활에도 흠잡을 것이 전혀 없는 순결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허물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에서 살아가기에 더군다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은밀한 중에도 죄를 멀리합니다. 다니엘의 경건한 삶을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

인일 수밖에 없지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2. 세상과 신앙의 타협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 다니엘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자 대적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과 상충되는 법을 만들어 다니엘이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 법은 30일 동안 다리오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든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사자 굴에 던져 넣겠다는 처형 방법까지 명시했습니다. 다리오왕은 그들의 흉악한 의도를 알아채지 못해 순순히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다니엘은 그 법을 알면서도 집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의 의도를 알았지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어떠한 불이익이나 위협이 있다 해도 믿음의 길에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경건의 삶은 성도에게 핍박을 주며 괴로움을 주기 마련입니다.

3. 세상의 핍박을 받는 경건한 삶

-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정직함이 상대적으로 그들의 부정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유난 떨지 말고 남들처럼 살라고 강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의 길에 세상의 저항과 핍박이 있음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말고 곳곳하게 경건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도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딤후3:12)는 말씀을 기억하고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비방과 박해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성도는 진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며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골1:24)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49장(통377) 예수 따라가며

◎ 폐 회 / 주기도문